

## 시선(視線)의 건축

### 해·물·제

바다와 땅, 집 이야기는 동해바다 옆 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상과도 같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강원도 도시 강릉은 일견 바다를 연상시키는 단순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강릉은 애정이 어린 동네이면서 삶을 영위하는 고유한 장소다.

건축사사무소 예인은 그 일상의 자연을 건축에 담아내는 건축 스튜디오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강원도 홍제동 한 컨에서 ‘기억을 담은 동네 건축’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규모의 건축 작업을 비롯해 건축과 관련된 문화 및 교육 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이후 건축 작업에 더욱 매진하고자, 자라온 환경과 가장 친숙한 바다 옆 정동진 들녘으로 사무실을 신축 이전해 자신만의 건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지가 가진 축적된 이야기에 집중하고 시간의 켜를 벗겨내는 작업을 지향하는 이들의 건축적 태도는, 건축 작업을 하는 정동진 들녘 한가운데 이들의 사무실만큼이나 자연에 가까워졌다. 바닷가 인근의 조금은 외진, 들녘 오두막에서의 작업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이들과 연결되고 이를 공유하고 있으니 일하는 장소가 굳이 도심 가까이에 있을 필요는 없을 터다.

### 자연으로의 시선

각각의 대지가 가진 자연경관과 문화적 조건이 저마다 다른 까닭에 이들이 전개하는 건축 여정에 동일한 과정과 결과물은 있을 수 없다. 건축사사무소 예인의 건축적 특징은 공간을 가두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공간이 아니고서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동해안의 풍경을 가두어 둘 필요가 있을까. 자연 그대로의 지형이 경사진 대지에서는 수직과 수평의 판을 사용하여 경계를 형성하지만, 육면체 중 두 개의 면은 개방되는 형태를 취하는 방법으로 수려한 경관을 가두어 두지 않으려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완벽하게 형성된 경계라 하더라도, 상부로 열린 하늘과 영롱쌍기 된 벽을 통해 바람의 숨결이 경계를 오가도록 건축적 장치를 만들어 둔다. 한편 건축사사무소 예인 사옥 프로젝트의 경우,

정동진 들녘에 두 개의 동으로 나뉜 매스에서 들녘과 후면부 습지의 갈대가 투과되는 투명의 연결 통로를 통해 외부공간과의 연결성을 투영하고자 했다. 이처럼 닫힌 공간에서 자연을 담아내는 방법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자연을 담아내는 건축을 지향한다.

### 삶에 대한 시선

바다 옆 동해안에 만들어지는 건축물은 숙박시설이나 F&B, 전원주택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건물의 용도보다는 바람과 눈, 비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형태적으로 이곳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일례로, 주택의 경우 경사지붕이나 배수가 용이한 형태의 지붕 구조를 가진다거나, 강한 바람에 대응하기 위해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서측으로 향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서향의 집을 짓더라도 루버를 사용해 바람과 일사량을 조절하는 식이다. 바다를 마주하는 숙박시설이나 F&B의 경우,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반면, 주택의 경우는 남향과 바다를 모두 담은 공간을 구성해 벗 삼은 바다를 동경한 지역민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자 한다.

### 다양성을 위한 시선

자연과 삶을 담아낸 건축 작업에 더해, 2019년부터 강릉시에서 추진한 문화도시의 일환인 ‘도시탐사대’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찾고 보존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건축랩’에서 디렉터로서 건축을 통한 교육에도 함께 하고 있으며,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청소년들과 협업해 전시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바 있다. ‘지구를 구하는 멋진 이야기’라는 주제에 맞춰 건축가로서 청소년들과 함께 파빌리온을 만들며 환경에 대해 재고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브라질 원주민 운동가인 ‘아일톤 크레낙’은 세상의 종말을 늦추기 위한 사상에서 다양함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했다. 이처럼 자연경관과 문화적 다양성을 잘 지켜내면서 이를 발전해 나가는 것은 주어진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문화와 정치, 경제와 세계화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건축이 가진 구조와 재료, 공간적 문제가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건축에 자연과 삶을 담아내는 것이 지역의 건축가가 모색한 나름의 삶의 방식이다.

## Interview

### 건축사사무소

### 예인을 감싸는

### 5가지의

### 키워드

#### 지역성

이형재(이하 이): 건축사사무소 예인이 지난 20년간 전개해 온 건축에서 ‘지역성’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건축가 자신도 강원도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건축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러한 성장 배경을 자신의 건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한다. 건축을 풀어나가는 프로세스, 영감을 얻는 요소, 대지의 분석과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나고 자란 장소적 배경이 작품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최이선(이하 최): 지역성이 담긴 건축을 추구한다기 보다, 건축작업에서 경관을 중요시한다. 자연과 경관을 중요시하는 건축을 하게 된 계기는 대학원 때 논문을 쓰면서부터다. 대금굴 물골 생태공원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을 통해 경관적인 건축에 주목할 수 있게 됐다. 자연환경은 마치 사람의 성격처럼 다양성을 지닌다. 강원도의 도시만 해도 강릉, 양양, 동해와 삼척 등 각기 다른 자연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택지지구의 건축과는 다른, 있는 그대로의 지형에 안착한 건축이 우리가 천착해온 건축이다. 마치 건축을 중심으로 땅과 바다, 자연이 이야기하는 듯한 상상을 자아내는 것, 자기를 내세우는 건물보다는 그 지형을 바꾸지 않으면서 지형과 닮아가는 그런 건축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 강원도에서도 특히 강릉과 양양은 관광과 문화가 발전해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도시의 개발이 외곽으로의 점진적 확대보다는 중심부에만 머물러 있던 탓에, 수도권과는 다른 지역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일례로, 강릉의 전체 주거 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 때문이다. 주변 환경의 장점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발이나 불필요한 보존 사이에서 현명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스스로 규제를 풀고 개발하는 사례도 차츰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

최: 자연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다양성을 조사해 분석하는 것은 대부분의 건축가가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통용되는 프로세스다. 내가 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사무실이 위치한 강원도 강릉 정동진 들녘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곳의 여러 요소에서 건축적 영감을 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장소적 맥락을 고려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 사무실이 아프리카나 유럽에 있다고 해도 변치 않고 동일할 것이다. 다만 어디서든 그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에서 건축가 저마다의 다름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최근 아무런 연구도 없이 지역에 정착해 작업을 시작하는 젊은 건축가들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연령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건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활성화된 건축 문화는 지역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폭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가 개인에게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건축계에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지역의 건축가는 이를 견제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고심해야 할 때다.

최: 요즘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어디서든 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어디에 정착해서 작업을 하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곳 강릉에 정착한 젊은 건축가들도 여럿 있다. 강릉에서, 양양에서,

속초에서 저마다 작업하고 있을 뿐 그들이 이 지역의 건축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동진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뿐, 나를 포함한 그들의 작업 전체를 지역성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지역 건축가’라는 족쇄로 그들을 가둘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무언가가 제대로 된 오리지널리티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성이라는 표현이 극대화된다면 그 자체가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다양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 거꾸로 타지역에서 내가 가진 출생지의 생각들이 변이되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타지역에서 유입된 이들이 만들어낸 다른 시각의 재발견이 있을 수 있다. 설계하는 이가 성장 과정에서 가졌던 경험은 그게 무엇이든 자신만의 분명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이는 최이선이 언급한 것처럼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든 그러하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하지 못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다.

최: 프랑스에서 건축하는 친구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강릉이 가장 좋았다고 하더라. 물론 걸치레로 하는 말일 수도 있다. 알다시피 강원도에 대단한 건축물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강릉에 와서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를 묻자, 좋은 자연과 깨끗한 공기 등을 접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자극이 되었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건축가가 하는 작업은 다양한 지역에서 그곳만의 여러 요소들을 다듬어 나의 어휘로 완성하는 게 목표일 것이다. 그것이 곧 지역성이기에 특정 지역에 한정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자연

이: 지난 20여 년간의 이들 작업을 복기해보면, 기본적인 내용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일례로 환경과 땅을 풀어나가는 방법, 형태를 빚어내고 공간을 배치하는 것, 디테일 하나까지도 많은 고심과 여러 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땅과 교감하고 대화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가까이엔 바다와 산이 있고 오래된 집과 소나무, 곳곳에 있는 정자 등을 보면 건축가가 뛰어놀기 좋은 환경이 아닐까 싶다. 자연을 접하고 다루는 솜씨는 이런 경험에 입각해 태생적으로 베어 있는듯 하다.

최: 디어 웨이브의 경우 돌출형 수영장을 통해 자연적 요소인 바다와 조금 더 가까이하고자 하는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유천동 판판집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지형을 수직과 수평의 판으로 치유하는 작업을, 지티 풀빌라의 경우는 골목길과 마당이 자연과 연결되는 접점을 만들고자 한 프로젝트다. 정동진의 우리 사무실 또한 바닷가 옆 들녘의 하천변 경관으로서의 건축을 고려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기존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고자 해도 통용되는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재료도 좋아졌고 원하는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연을 바라보는 경관, 지형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건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이들의 작업에는 풀빌라 형식의 건축이 많다. 최근의 스테이 열풍에 뛰어들 건축주의 강한 요구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런 풀빌라 형식은 프로 그래픽 한계가 명확하다. 강릉 하면 떠오르는 바다를 생각했을 때 굳이 풀빌라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예인의 건축에는 이를 반박하듯 다양한 요소를 첨가했다. 일례로 지티 풀빌라의 경우, 웬 골목길에 만들어진 의아한 건물이다. 순례자가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듯한 외부 복도를 지나 현관에 들어서면 커다란 홀이 나오고 바깥마당이 바로 보인다. 이런 시퀀스는 충분히 의도적이다. 경관이 좋은 곳은 아깝다고 할 정도로 벽으로 막아 두었는데, 이는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라는 공간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있는 그대로의 환경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의도된 골목길과 여담음을 통해 소소한 충격을 주는 것. 이런 부분은 주변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고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한 건축임을 알 수 있다.

최: 지티 풀빌라는 원래 3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주택이었다. 각 마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지 주변으로는 차량 소음도 심하고 몇 해 전 발생한 큰 화재로 경관도 많이 훼손되어 있었던 까닭에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어떤 경관으로서의 건축을 만드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고 결국 배치와 레이아웃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 중간 마당으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소음을 최소화하고, 골목을 통한 확장과 축소를 통해 공간에서의 경험을 강조하고자 했다. 디어 웨이브에서도 바다와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수영장을 통해 바라보이는 풍경을 수평선까지 연장되도록 했다. 언제 어디서나 푸른 바다와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설계한 스테이에서 단순 필요로만 만들어진 수영장은 없다. 저마다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다.

초당동 꽃감집



© 오준환

**디테일**

이: 이들의 작업 중 초당동 꽃감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릉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집집마다 감나무 한 그루를 마당에 두고 가을이면 감을 깎아 처마에 주렁주렁 매달아 꽃감을 만드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잘 말린 감은 다듬어 싸리나무 가지에 꽃아 꽃감 시장에서 거래했다고 전해진다. 초당동 꽃감집에는 태양광 조절을 위해 처마에 꽃감을 걸듯 벽돌을 쌓았는데, 성글게 조성된 이 벽돌은 처마에 꽃감이 주렁주렁 걸린 강릉의 옛 풍경을 연상케 한다. 이처럼 과감해 보이는 시도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하고, 지역적인 요소도 반영한 디테일은 분명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가는 도면으로 그린 내용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건축가가 시공자보다 더 많은 것을 접하고 이해하고 있어야만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건축물이 설계자의 것이 아닌, 시공자의 것이 되게 마련이다. 작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령 어떤 디테일을 풀어낼 때 주변에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듣거나, 특정 제품을 소개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소규모 작업을 주로 하는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사회적 역할**

이: 과거에는 1세대라 부르는 우리 시대 건축가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건축적 토양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았다. 도제식으로 일을 배우면서 그들의 건축적 방법론이나 책임감, 사회적 역할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며 이를 자산처럼 활용하는 건축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젊은 건축가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듯하다. 건축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무겁고 진지한 고민보다는 건축 영역을 넘나들며 가능한 여러 분야(실내 디자인, 브랜딩, 전시기획, 공간 운영 등)에서 활동한다.

최: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건축랩, K12건축학교, 마을학교 선생님, 강릉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집수리아카데미, 도시탐사대 등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개인의 건축 작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에는 지역을 떠나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 건축가가 꾸준히 자신의 작업을 하며 자신의 동네에도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자산이 된다고 생각한다. 건축가로서 본연의 작업뿐 아니라 문화도시 사업에도 일부 역할에 기여하며 시민들에게 우리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들려주는 즐거움이 있다.

이: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건축계에서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해 곳곳에서 아우성친다. 하물며 지방은 상황이 더욱 녹록지 않다. 지역의 건축가라면 모두가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기만의 건축을 하고 있지만, 노력의 부족을 인프라의 문제로 치부하는 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최: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여건이 좋은 편이다. 오랫동안 고향에서 활동하면서 쌓아 놓은 인적, 물리적 네트워크로 필요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안정과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치열하게 일하지만 과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주변을 돌아보면 풍경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 내가 나고 자란 이 땅이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

이: 20여 년간 이어온 일련의 작업을 건축가의 노력으로 이끌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업체 및 기업과 협업하는 등 자의, 타의에 의해 교류하는 다른 대상들이 있었을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건축사사무소 예인은 어느덧 강원도를 대표하는 건축 스튜디오다. 그런 만큼 주변을 잘 살피며 이곳에 터를 마련한 젊은 건축가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

최: 강릉을 비롯해 크게는 영동지방, 더 나아가 강원도 전체에 걸쳐 다음 세대가 주축이 되어 좋은 건축작업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읽힌다.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개별 프로젝트마다 차별화를 가지고 추구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하다. 기술이나 비용 등 각 시기 별 제약 조건은 극복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자신이 하는 건축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도 강릉이라는 지역의 도시 문화에서 선명한 작업을 남기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Architecture Studio YEIN | 건축사사무소 예인**

바다와 호수 그리고 대관령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강릉에서 건축 작업을 하는 건축사사무소 예인은 대지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벗겨내고 삶의 모습을 건축에 담는 작업을 한다. 바람과 빛 그리고 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이 간직한 오랜 기억을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건축주에게 들려주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이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 건축가란 무엇 그 마을의 자연경관과 삶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대지, 어떤 문화에서도 그 경관을 이해하고 삶을 구축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사사무소 예인은 자연과 그 경관을 다루는 건축 작업이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행복한 기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되도록 기억하고 바라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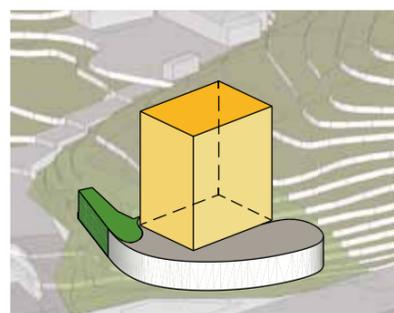
**이현재**

중앙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정림건축에서 실무를 시작해 사장(Design Principal)까지 역임했다.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맡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청와대 분관 춘추관 설계를 통해 한국전통건축의 현대화에 대한 새로운 공법과 구조를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비서실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후 평양 낙랑구역소재 평양과학기술대학과 황해도 봉산군 살림집 등 2001년부터 10여 년간 평양을 왕래하며 남북관계에 기여하기도 했으며, 동북아 교육문화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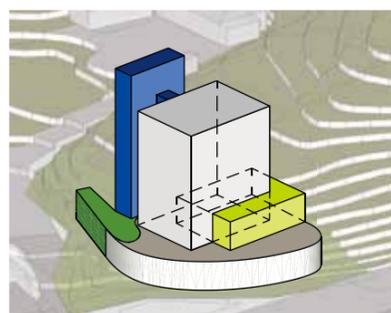
**최이선**

동의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새안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거쳐 2003년 건축사사무소 예인을 오픈했다. 자연경관적 지형조건에 건축적 공간을 형성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다수의 프로젝트를 통해 강원도 건축문화상, 봄봄부띠끄호텔로 미국건축상을 수상했다.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K12건축학교, 마을학교 선생님, 강릉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서 집수리아카데미, 도시탐사대 등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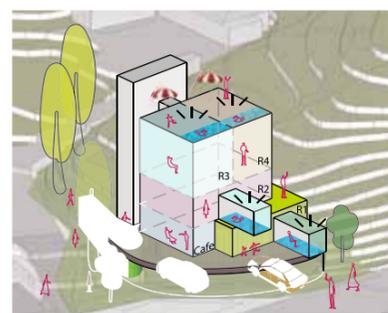




Initial Building Mass



Adding Core and Terr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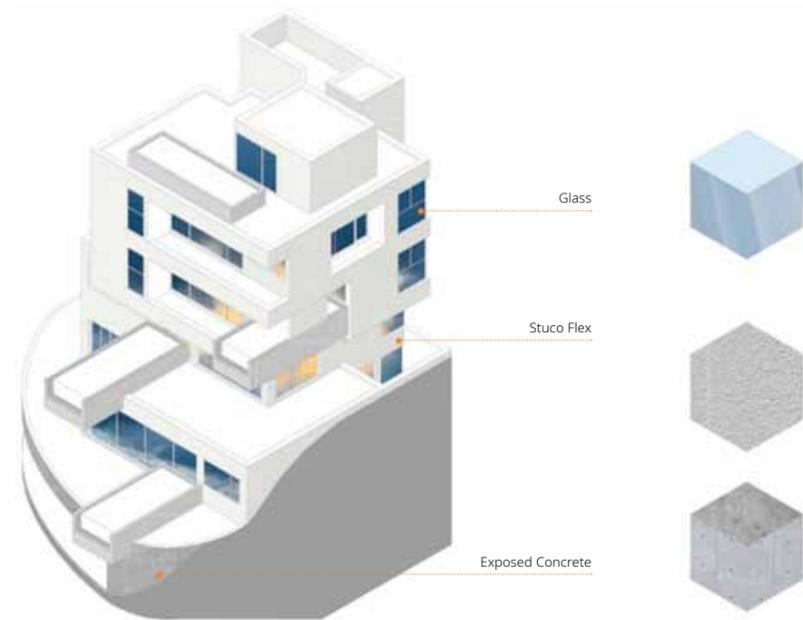
Adding Pool Boxes and Activation

DESIGN PROCESS

‘동해 푸른바다로 금방이라도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바닷가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본다. 도로 넘어 해변에 위치한 단층의 낮고 오래된 집들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고, 이 언덕에 지어질 숙박시설은 저 푸른 파도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는 처음 대지와 만났을 때 느낀 건축가의 심상이다. 바다 방향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아직은 확장 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남측면의 소로를 통해 진입하는 동선을 계획했다. 기존의 자연지형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대지의 지형을 이용해 도로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지하층에 주차장과 기계실을 배치하고, 남과 서측면의 경사지를 이용해 지하에서 1층으로 연결되는 외부동선 및 휴게공간을 계획했다. 전면도로와 경사진 지형이 2개 층 정도의 높이차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하층 주차장에 이어 수직의 동선을 따라 1층에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인 카페를 배치했다. 이곳은 처음 파도와 마주하는 공간으로 넓은 테라스와 폴딩도어를 통해 공간의 확장을 꾀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매 층마다 독립된 객실로 구성했는데, 모든 객실은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구조로 계획해 모든 시간 파도와 만날 수 있다. 특히 1~3층의 객실에는 외부 발코니에 바다와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수영장을 배치해 바라보이는 풍경을 수평선까지 연장되도록 했고, 1층 객실의 경우 현관에서 진입하면 마주하는 선경을 통해 다이닝 공간에서도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북측으로 구성된 최상층

객실은 지붕층의 테라스 공간과 인피니티 수영장을 계획해 다양한 공간 경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해 바다와 마주한 디어 웨이브는 경포대 해변에서 바다를 보며 하루를 머물고자 하는 여행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언제 어디서나 푸른 바다와 마주하고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공간. 건축을 통해 이를 유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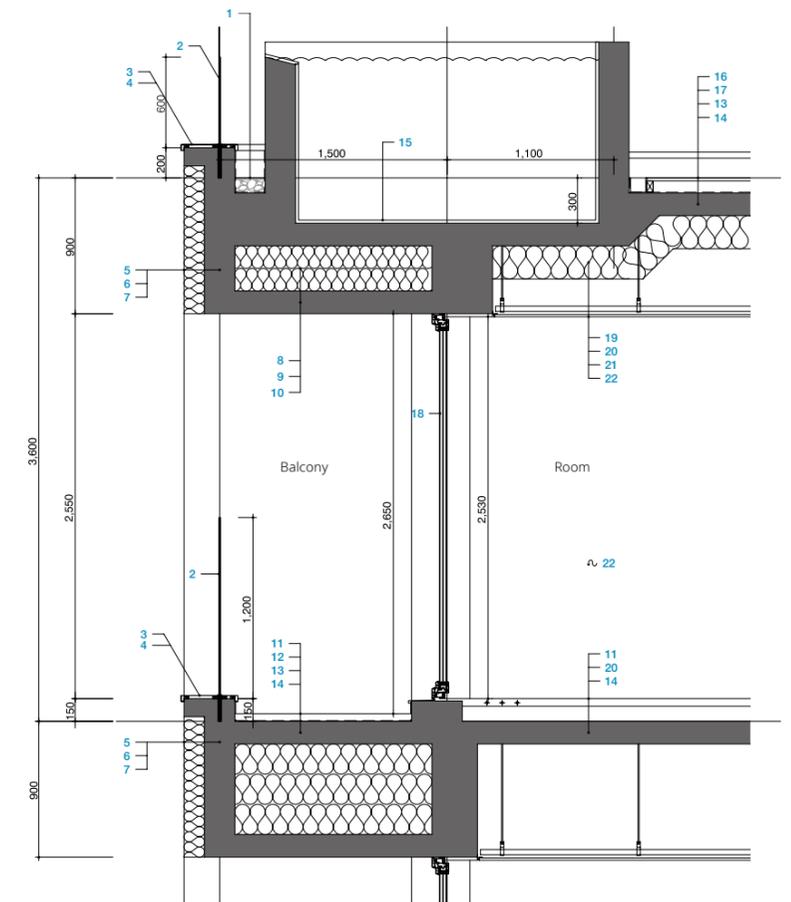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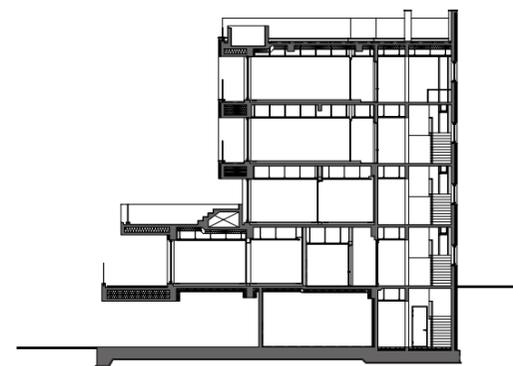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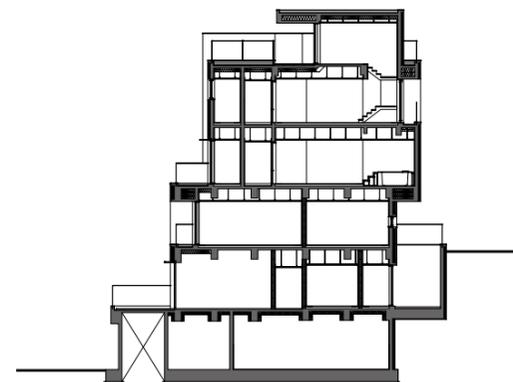
MATERIAL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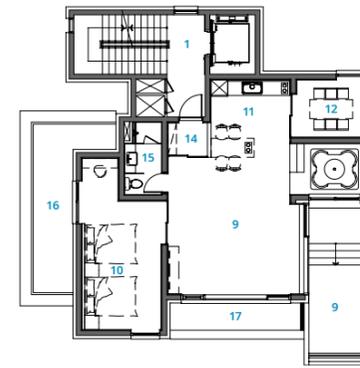
- 1 CRUSHED STONE
- 2 TEMPERED GLASS RAILING
- 3 T1.2 STEEL / ANTI-CORROSIVE OIL PAINT
- 4 30X20X1.6T ZINC SQUARE PIPE
- 5 200 RC WALL
- 6 T135 INSULATION
- 7 STUCCO FINISH
- 8 T300 INSULATION
- 9 T150 DOUBLE SLAB
- 10 EXPOSED CONCRETE
- 11 APP. CERAMIC TILE
- 12 CEMENT MORTAR
- 13 NON-EXPOSED URETHANE WATERPROOFING
- 14 T150 RC SLAB
- 15 EPOXY COATING FOR SWIMMING POOLS
- 16 T20 IPE DECK / OIL STAIN
- 17 □-75X45X1.6T ZINC SQUARE PIPE @600X1,200
- 18 TRIPLE GLAZING(LOW-E)
- 19 T220 INSULATION
- 20 LIGHTWEIGHT METAL FRAMING CEILING SYSTEM
- 21 DOUBLE PLASTERBOARD
- 22 APP. ECO-FRIENDLY PAINT
- 23 T150 ELECTRIC HEAT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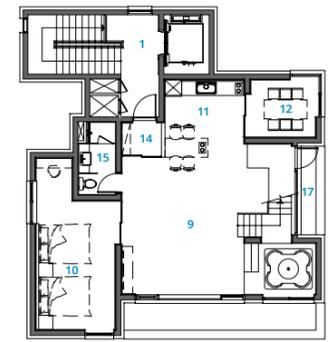
DETAIL\_BALC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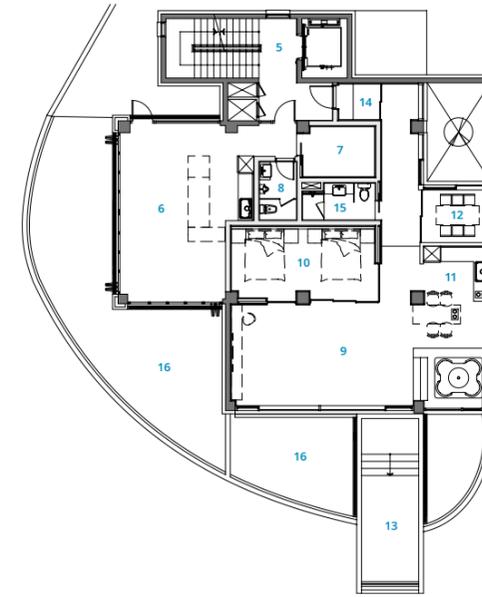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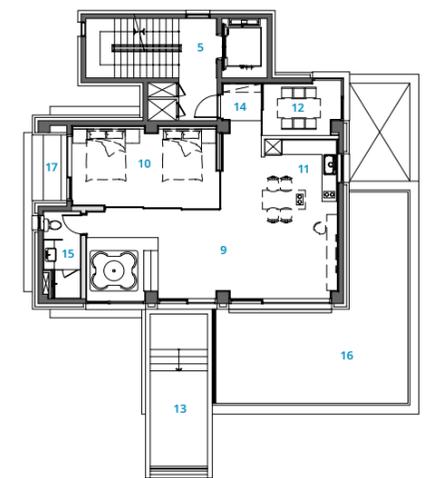
3RD FLOOR PLAN



4TH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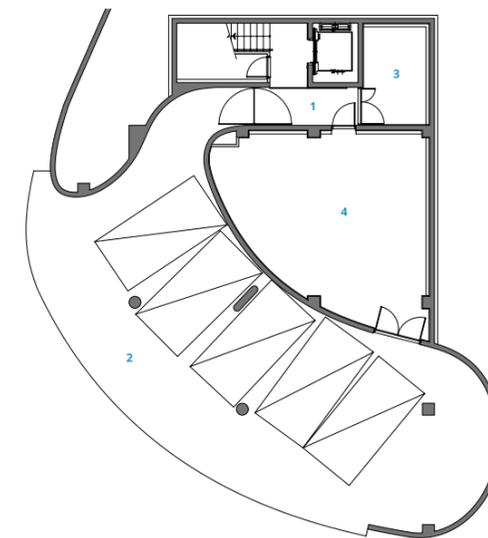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 1 VESTIBULE
- 2 PARKING LOT
- 3 MECHANICAL ROOM
- 4 WATER TANK ROOM
- 5 HALLWAY
- 6 CAFE
- 7 LODGING
- 8 RESTROOM
- 9 ROOM
- 10 BEDROOM
- 11 KITCHEN
- 12 BBQ AREA
- 13 POOL
- 14 ENTRANCE
- 15 BATHROOM
- 16 TERRACE
- 17 BALCONY



B1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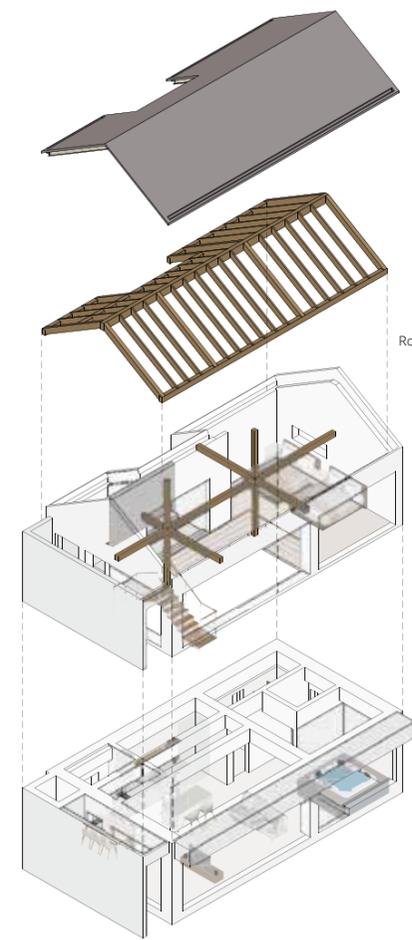


**모시풀 가득한 들녘의 변화**

강릉 즈므에서 경포대 호해정으로 가는 길에는 모시풀이 가득한 들녘이 있었다. 지금은 왕복 4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개설돼 경포 해수욕장으로 가는 가장 넓은 도로가 자리 잡았다. 대지는 경포대 북측 호수가 매립되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농지가 급격히 줄어든 땅에 위치한다. 기존의 한옥 주거시설을 농어촌민박, 펜션, 그리고 풀빌라 등의 신축 건물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모시풀을 재배해 모시웃과 농사를 짓던 기존 마을은 관광지로 변모했다.

**세 개의 마당과 골목길 연결하기(배치)**

경포대 방향으로 벗어나 가로수가 심긴 4차선 도로에 접한 대지는 남측으로 낮은 소나무숲이 있는 구릉 사이에 자리한다. 북측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 조건을 가졌기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을 고려해 북측에 주차장과 카페를 두고 두 개의 펜션동과 작은 중정을 계획했다. 카페와 두 개의 펜션동 사이에 마당을 배치하고, 펜션으로 진입하는 공간은 골목길처럼 조성했다. 개별 공간으로 향하는 길이 마치 마을 골목길에 들어서서 경험과 유사하도록 전이공간을 마련했다. 동시에 내부에는 거실과 이어진 개별 마당을 두어 공간의 확장 축소를 통해 단조롭지 않은 공간적 흐름을 만들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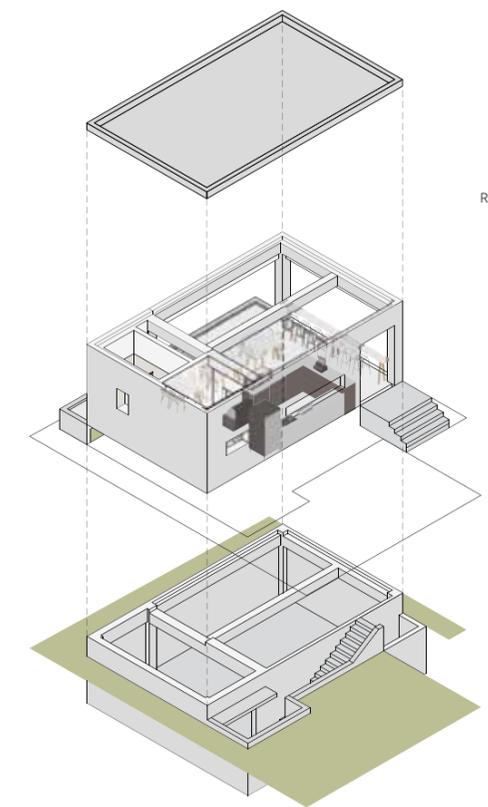


Roof Floor

2nd Floor

1st Floor

ISOMETRIC



Roof Floor

1st Floor

Basement Floor

087

SPE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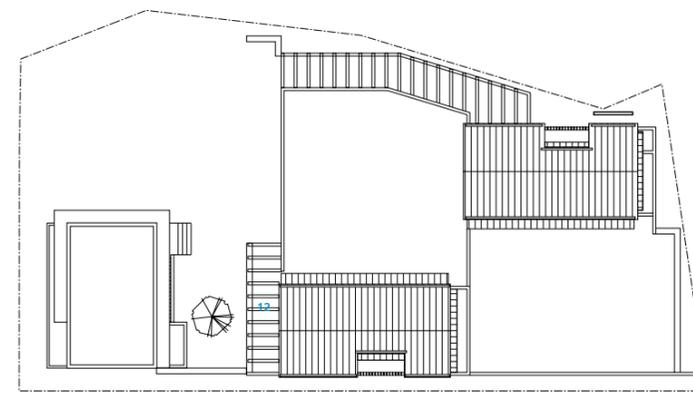
### 복층의 펜션과 하이브리드 구조

초입에 위치한 카페는 투숙객 응대와 휴식 공간의 역할을 겸하는 서비스 공간으로 계획했다. 두 개의 숙소는 비슷한 평면을 가졌지만, 방향에 따라 다른 공간 경험이 가능하도록 변주를 주었다. 대지 중간에 자리 잡은 동은 동북향 경포대 방향을 향해 있어 도로와 들녘 넘어 원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소나무숲 옆에 있는 동은 서남향으로 열어 숲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측 벽면을 낮게 조정해 숲과 마당이 이어지게 했다. 1층 내부 공간은 거실과 주방, 스파로 구성했다. 공통적으로 외부 마당의 수영장과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 2층은 중목구조의 지붕을 통해 한국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모던한 인상의 침실이 되도록 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2층 벽까지 구성하고, 지붕은 중목구조로 된 하이브리드 구조를 구현해 따스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철재 돌출계단을 오르면 열린 거실이 펼쳐진다. 침실로 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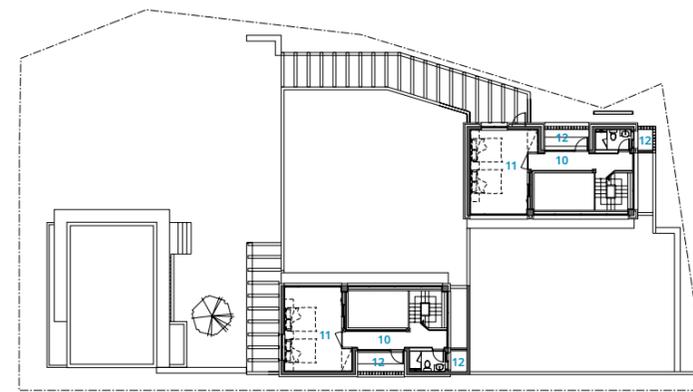
복도에는 발코니를 설치해 외부와 연결되도록 했다. 외부에서는 골목길을 따라 외부 공간을 조성했다면, 내부에는 긴 복도를 만들어 다양한 공간감을 경험하도록 했다. 특히 화장실에도 큰 창을 내 바깥의 숲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 건축물 이름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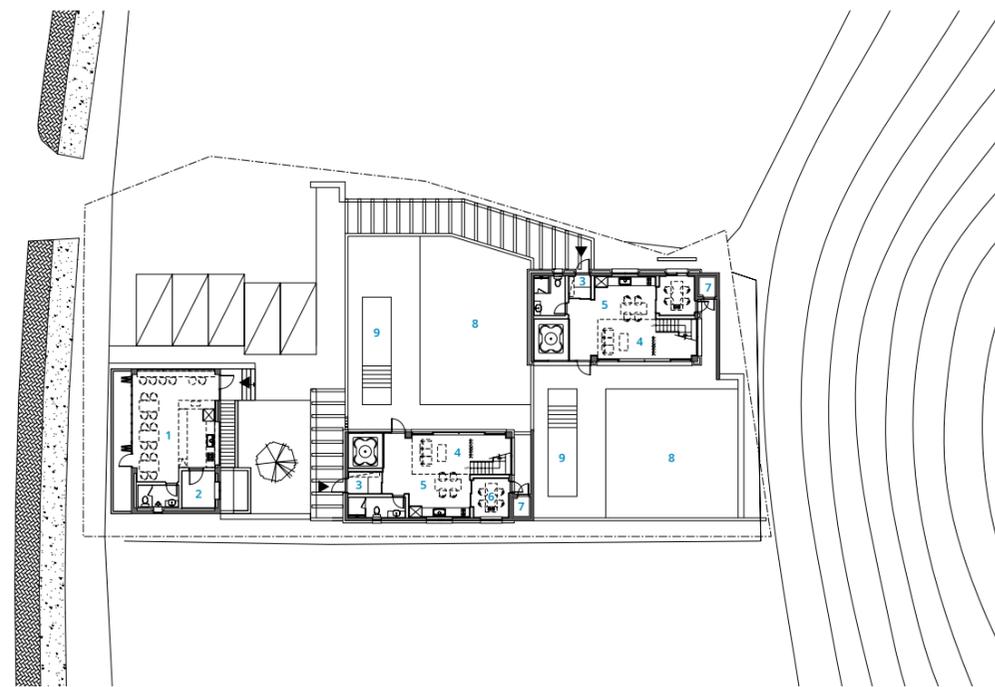
카페는 펜션을 이용하는 투숙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부 손님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지티 카페(Jitty Cafe)'로 이름 지은 이곳은 작은 정원 옆 들녘과 경포 해변을 바라보는 향을 가졌다. 두 개의 펜션동은 2층에서 동북향을 바라보는 쪽으로는 소나무(pine)를, 남측 골목을 따라 건축물로 진입하는 동은 경우 마당에서 남측 소나무를 바라보며 풀장을 즐길 수 있으므로 숲 (forest)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ROOF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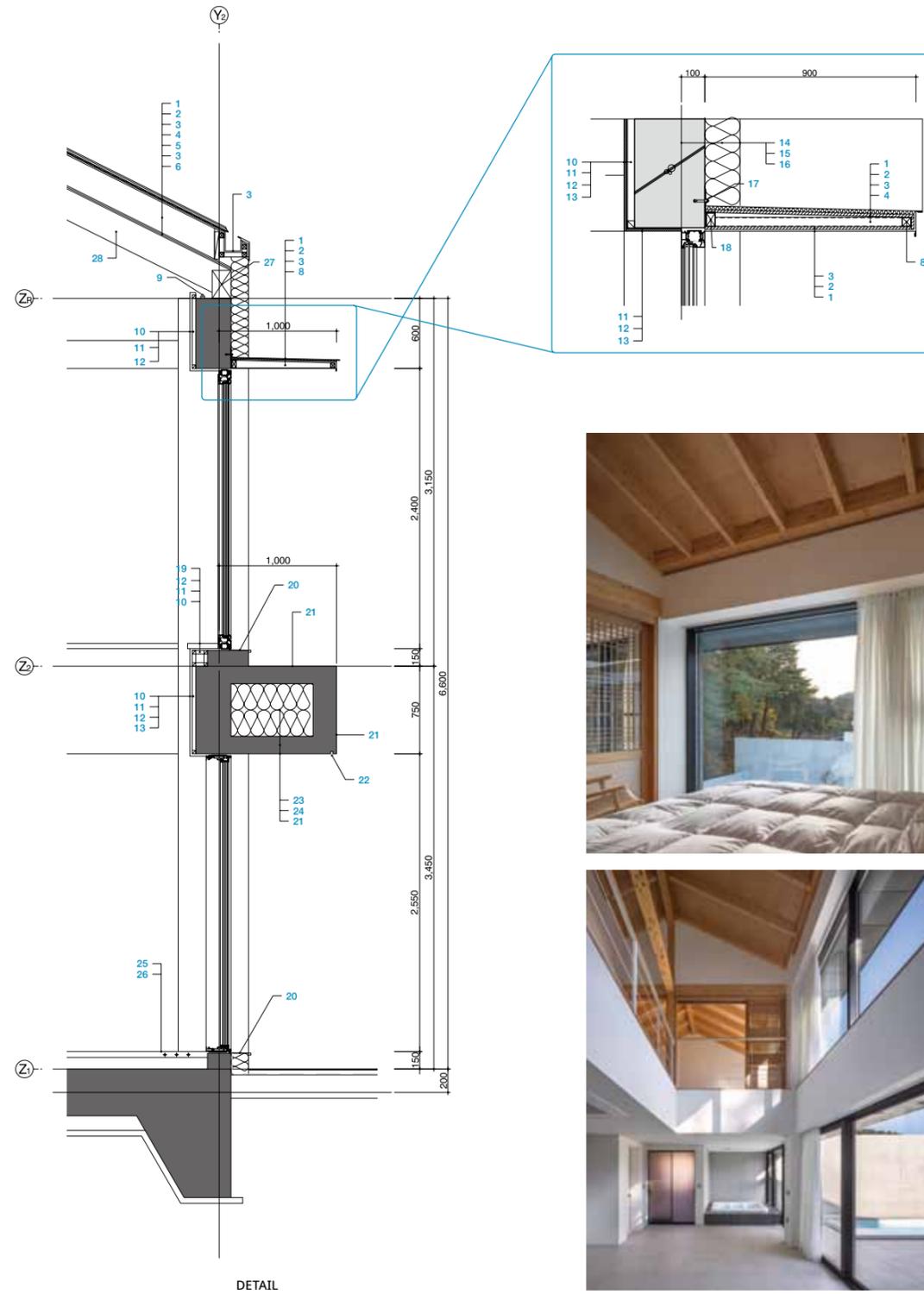
2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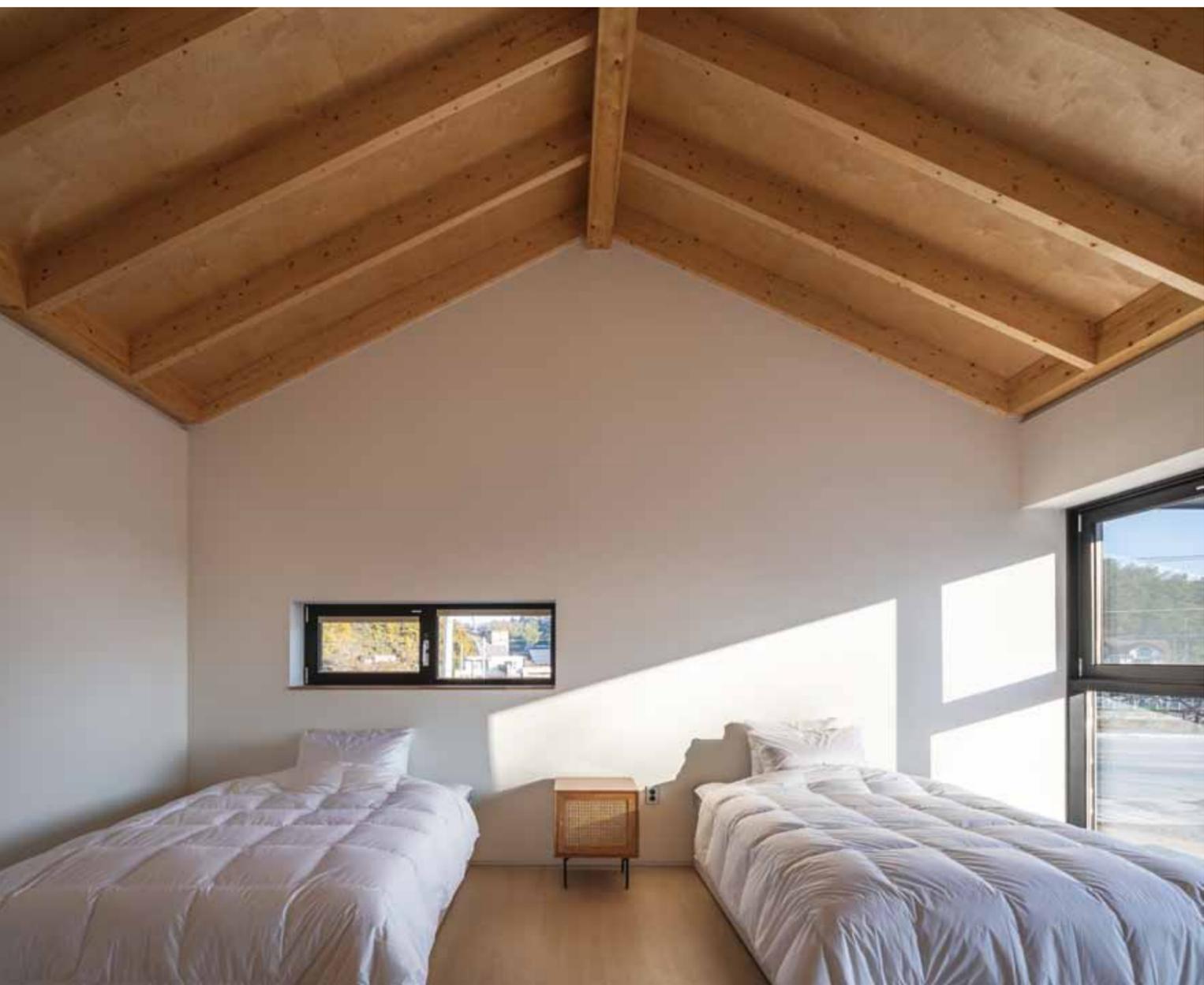


1ST FLOOR PLAN

- 1 CAFE
- 2 OFFICE
- 3 ENTRANCE
- 4 LIVING ROOM
- 5 KITCHEN
- 6 BBQ PATIO
- 7 STORAGE
- 8 GARDEN
- 9 POOL
- 10 HALLWAY
- 11 BEDROOM
- 12 BALCONY

- |                                   |                                    |                                     |                       |
|-----------------------------------|------------------------------------|-------------------------------------|-----------------------|
| 1 T0.7 ZINC STANDING SEAM         | 8 □-40X40X2.0 @600                 | 15 T135 INSULATION                  | 22 STOP WATER HOLE    |
| 2 BUILDING PAPER / DELTA MEMBRANE | 9 LED INDIRECT LIGHTING            | 16 STUCCO                           | 23 T450 INSULATION    |
| 3 T12 WATERPROOF PLYWOOD          | 10 30X30 LUMBER @600               | 17 T4.0 STEEL BRACKET, W/SET ANCHOR | 24 T50 DOUBLE SLAB    |
| 4 2"X10" LUMBER @400              | 11 T5 PLYWOOD                      | 18 □-60X40X2.3                      | 25 PORCELAIN TILE     |
| 5 T220 INSULATION                 | 12 T9.5 GYPSUM BOARD 1PLY          | 19 T45 HARDWOOD / VARNISH (W=310)   | 26 HOT OIL BOILER     |
| 6 T12 OSB PLYWOOD                 | 13 ECO-FRIENDLY PAINT (2TIMES)     | 20 T1.2 STEEL / OIL PAINT           | 27 60X240 WOOD RAFTER |
| 7 ZINC GUTTER                     | 14 T300 REINFORCED CONCRETE GIRDER | 21 EXPOSED CONCRETE                 | 28 160X240 GIRD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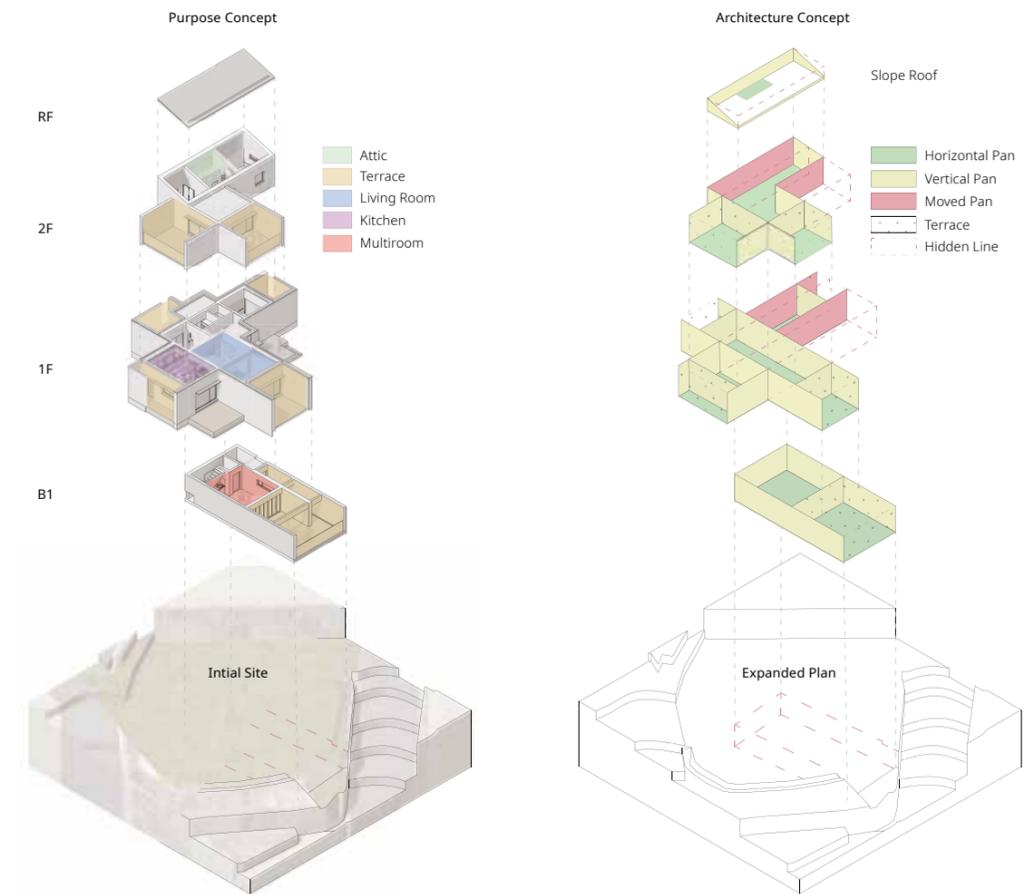


자연스러운 지형적 경관을 가진 도시 주변의 곳곳은 마치 다도해의 섬처럼 개발되고 있다. 연속적인 흐름으로서의 지형을 다루는 것이 아닌, 획일화된 분절을 통해 의도된 택지 일부에 주택 설계를 의뢰받는 건축가라면 누구든 곤혹스럽기 마련일 것이다. 대지를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이를 개선하여 다시 살만한 장소로 만드는 일종의 건축적 개입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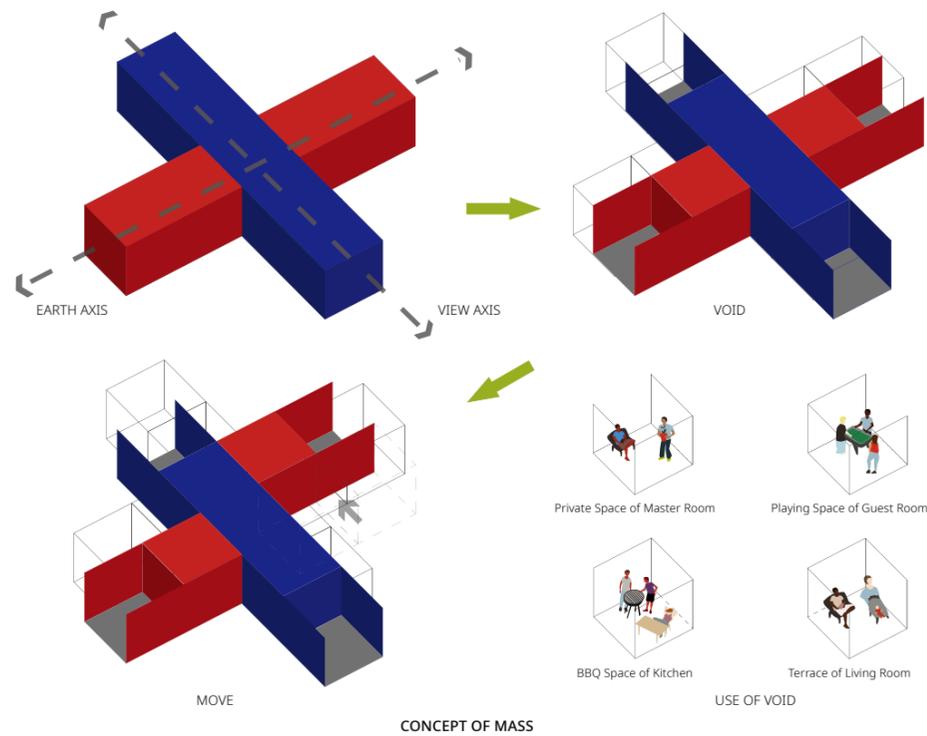
대지의 축은 서향이지만 건축물의 축을 남향으로 비틀어 앞, 뒤 그리고 주방 층 3개의 외부마당을 만들었다. 건축물의 메인 방향은 거실에서 인근의 천이 흘러들어오는 남향으로 설정했다. 석축이 축조되어 평활한 대지에 단순히 건폐율을 맞춰 배치하기에는 대지의 조건이 협소했고, 주택에서 확보해야 하는 부가적 공간을 위해서는 대지의 남측 석축 일부를 제거하고 지하 공간의

남측면을 티워 다시 지하 마당을 구축하는 작업을 선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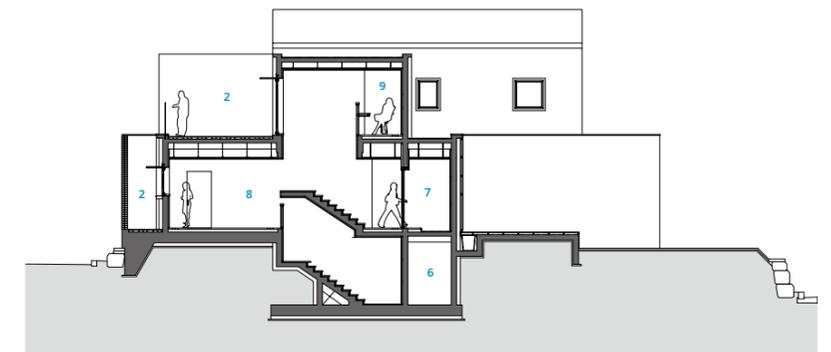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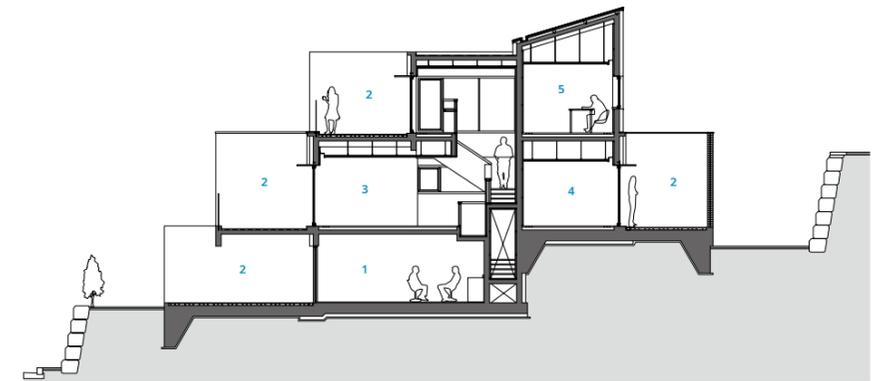
1층은 거실과 주방 등 가족의 사용빈도가 높은 공간을, 2층은 두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각각 배치했다. 획일화된 대지가 건폐율이 낮은 자연녹지인 탓에 부속시설 등 여분의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했다. 이에 남측 석축 한면을 제거해 비록 지하층이지만 외기와 한 면이 접하고 개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커를 낮추어 다용도 공간을 확보했다. 외부의 마당과 각 층의 발코니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주변 이웃과 완충공간으로 작용하도록 했고, 중앙의 계단을 통해 사면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내부 구조는 외부에서도 수직판으로 보여짐과 동시에 닫힌 듯 열린 중의적인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렇듯 유천동 판판집은 자연 지형이 사라진 단과 단으로 만들어진 대지에 수평과 수직의 판을 활용해 자연지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CONCEPT



- 1 MULTI PURPOSE ROOM
- 2 TERRACE
- 3 LIVING ROOM
- 4 MASTER BEDROOM
- 5 ROOM
- 6 STORAGE
- 7 ENTRANCE
- 8 KITCHEN
- 9 FAMILY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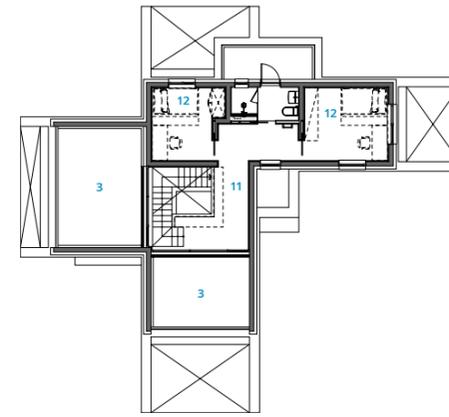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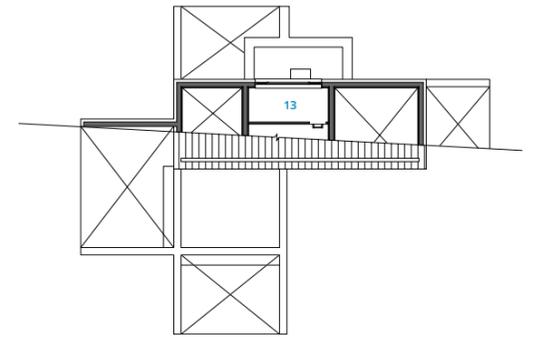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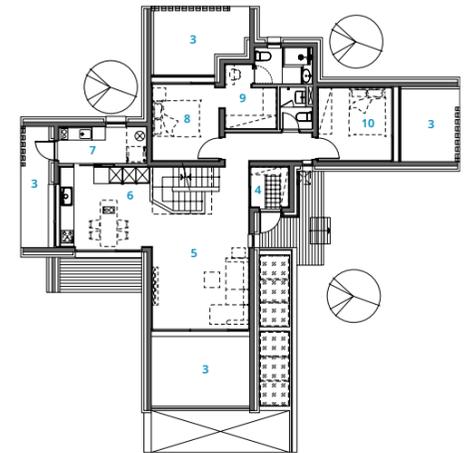
- 1 MULTI ROOM
- 2 STORAGE
- 3 TERRACE
- 4 ENTRANCE
- 5 LIVING ROOM
- 6 KITCHEN
- 7 UTILITY ROOM
- 8 MASTER BEDROOM
- 9 DRESSING ROOM
- 10 GUEST ROOM
- 11 FAMILY ROOM
- 12 ROOM
- 13 AT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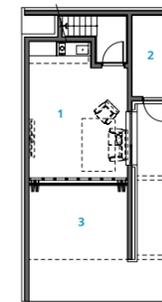
2ND FLOOR PLAN



ATTIC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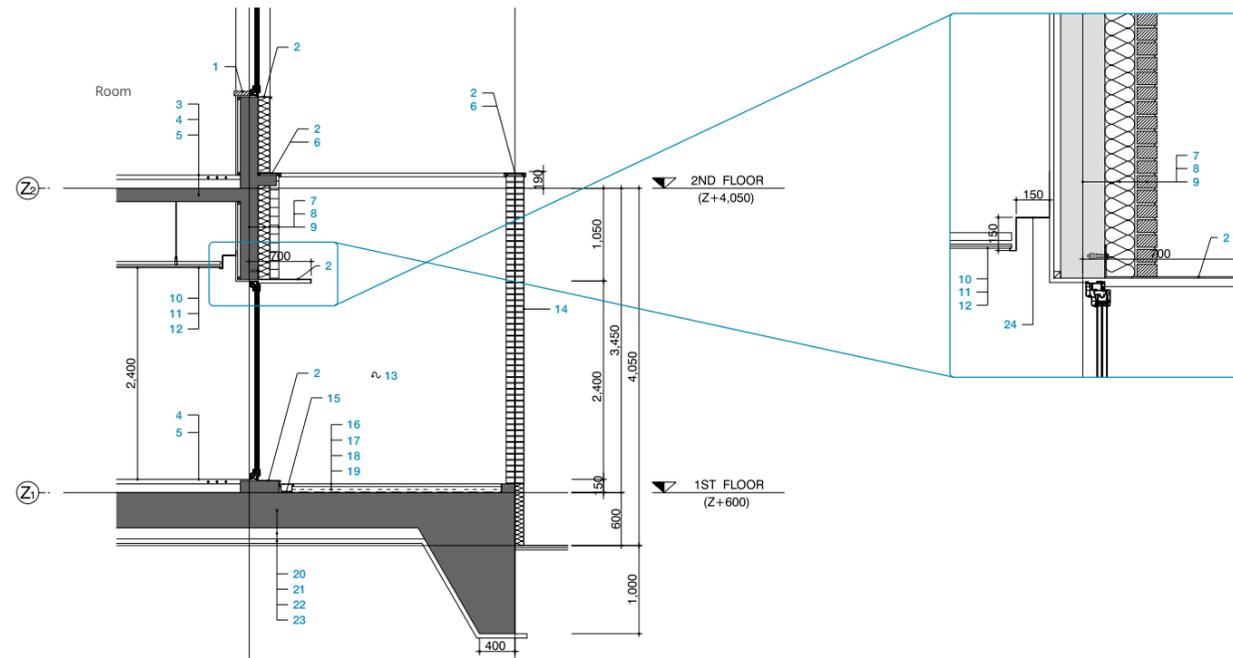


1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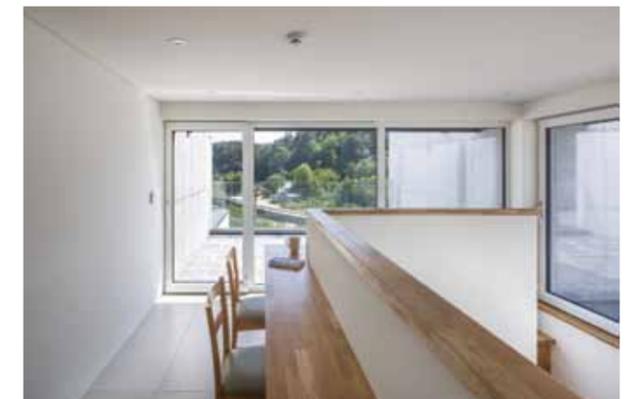


B1 FLOOR PLAN

- 1 T50 HARD WOOD
- 2 T1.2 STEEL / OIL PAINT
- 3 FLOOR SHEET
- 4 T150 HOT WATER BOILER
- 5 T150 REINFORCED CONCRETE SLAB
- 6 □-20X20X1.6
- 7 0.5B BRICK (290X90X48)
- 8 T135 INSULATION
- 9 T200 REINFORCED CONCRETE WALL
- 10 LGS CEILING FRAME
- 11 T9.5 GYPSUM BOARD 2PLY
- 12 ECO-FRIENDLY PAINT (2TIMES)
- 13 EXPOSED CONCRETE
- 14 1.0B BRICK(290X90X48)
- 15 AL. TRENCH (150X90)
- 16 T25 SLATE FLAGSTONE
- 17 CEMENT MORTAR
- 18 T70 CONCRETE
- 19 URETHANE WATERPROOF
- 20 T400 MAT FOUNDATION
- 21 T125 INSULATION
- 22 T150 CONCRETE
- 23 T0.03 PE.FILM (2LAYERS)
- 24 T1.2 GALVANIZED STEEL (150X150)



DETAIL





#### 대한민국의 정동쪽 마을 정동진

사무실이 자리한 마을은 동해 바다와 면한 정동진이다. 정동진의 지명은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 쪽의 나루터가 있는 부락'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동해안의 바닷가 마을은 대부분 농어촌으로 바닷가에 작은 포구와 후면으로 들녘이 있는데, 대지는 마을 외곽 너른 들녘에 위치해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 정동천과 들녘 사이

대지 북동측으로는 정동진천 저류지가 있어 봄이면 갈대가 파릇파릇 물결치고, 남측 들녘으로는 사계절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다. 대지 형태가 하천변을 따라 북측으로 길고 폭이 좁게 내려오다 넓어지는 형상이기에, 건축물을 북측으로 배치하고 좁은 부지까지 사용해 남측 마당 공간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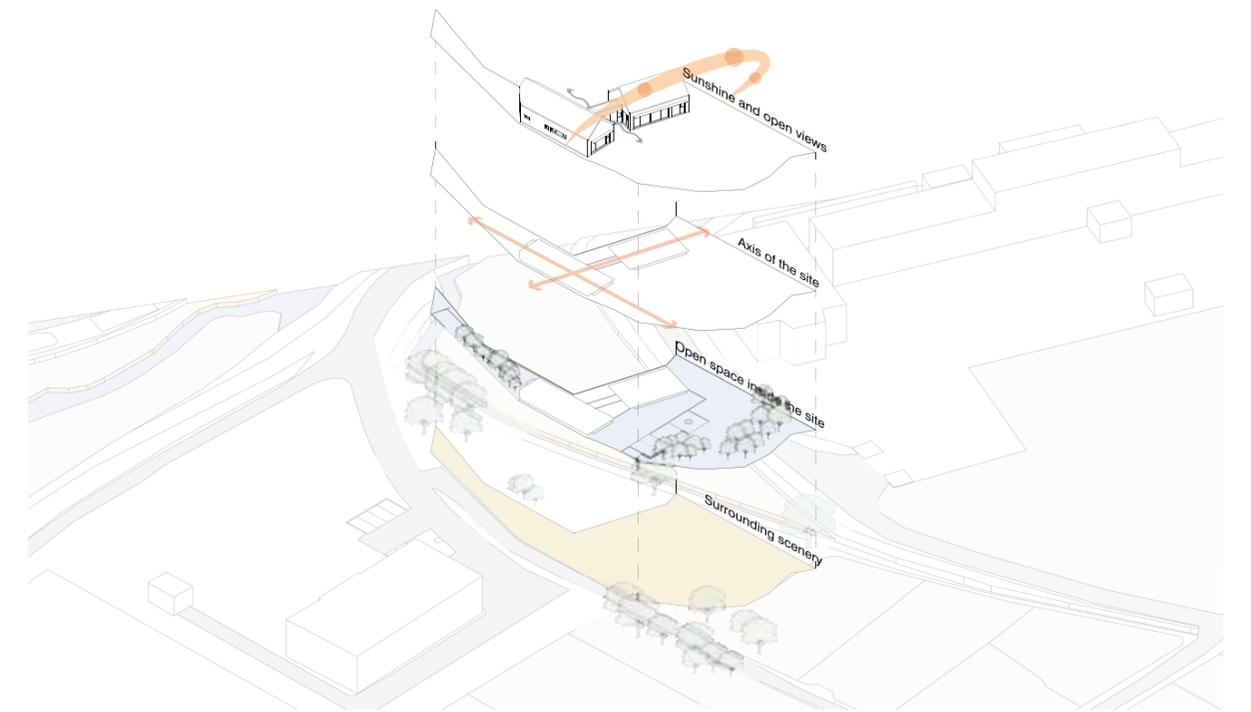
#### 두 공간의 연결

건축사무소로 활용될 이 건물은 기능적으로 두 개의 큰 공간을 필요로 했다. 직원들의 설계 공간과 건축사의 업무 공간이 그것으로, 두 공간을 분리하되 연결 통로를 투명하게 만들어 남측과 북측을 단절하지 않고 이어주고자 했다. 출입구를 북측에 두고 긴 복도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다. 직원들의 설계실에는 모형 제작과 탕비실을 겸한 다목적 공간과 화장실을 배치했다. 남측과 북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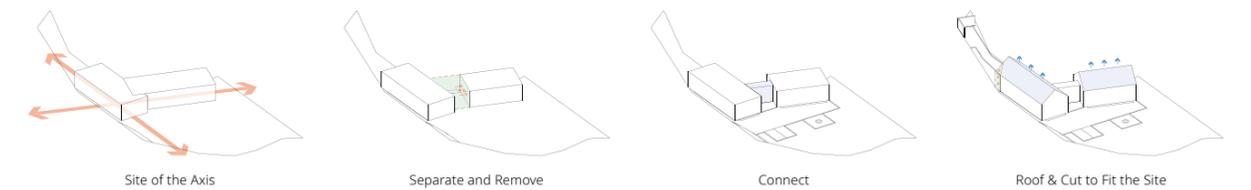
연결하는 통로를 지나면 대표 건축가의 업무 공간과 확장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위치한다. 이밖에도 기존에 협소했던 사무실에서 보관이 어려웠던 자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창고를 만들었다. 형태는 노출콘크리트 마감의 박공지붕에, 고벽돌 외장재를 돌렸다. 신축이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을 의도했다. 두 개의 분리된 매스가 자연 속에 순응하고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 정동진에서 쓰는 건축이야기

정동진은 어촌과 농촌이 어우러진 조용한 마을이지만 산업의 발달과 한국전쟁 등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동네이기도 하다. 해돋이 관광지로서의 명성은 여전하나, 최근 관광객 수 감소와 새로운 관광시설 및 콘텐츠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사무실을 정동진으로 이전한 것은, 오늘날 네트워크의 발달로 건축설계업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리라는 판단에서였다. 무엇보다 정동진역은 서울에서 KTX로 한번에 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의 강릉 시내와의 거리 등은 문제되지 않았다. 건축사사무소 예인 사옥은 설계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와, 점차 소멸해가는 지역 문제에 대응하며 이곳 정동진에서 써내려갈 건축 이야기가 세상과 연결되어 아름다운 해돋이 마을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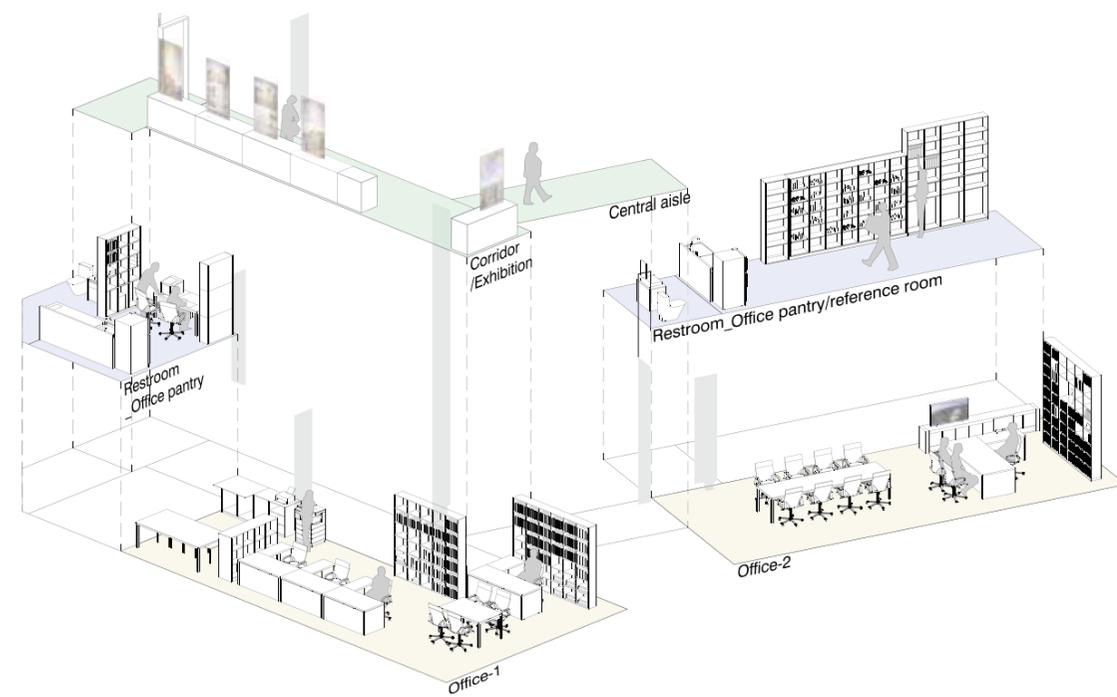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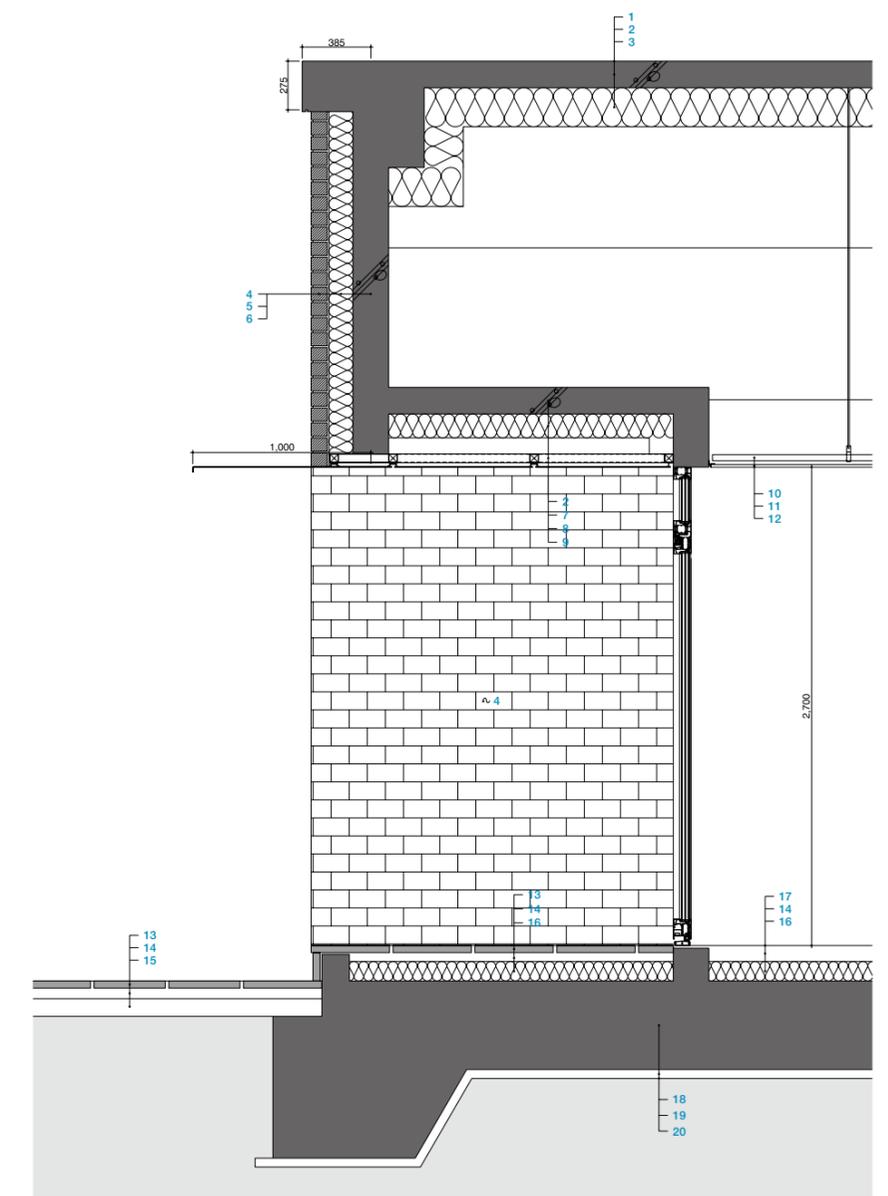
MASTER PLAN CONCEPT



MASS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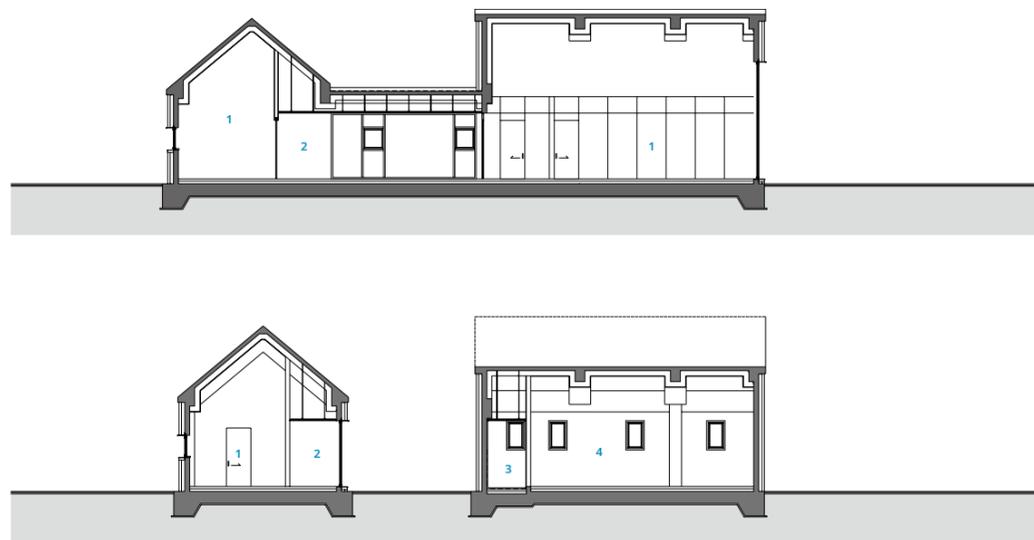


- 1 EXPOSED CONCRETE
- 2 T150 REINFORCED CONCRETE SLAB
- 3 T220 INSULATION
- 4 0.5B BRICK
- 5 T135 INSULATION
- 6 T200 REINFORCED CONCRETE WALL
- 7 T135 INSULATION
- 8 □-50×50×2.3
- 9 T2.3 CORTEN STEEL
- 10 LGS CEILING FRAME
- 11 T9.5 GYPSUM BOARD 2PLY
- 12 PAINT FINISH
- 13 SLATE FLAGSTONE
- 14 CEMENT MORTAR
- 15 T100 ABANDONED CONCRETE
- 16 T110 INSULATION
- 17 POLISHING FLOOR FINISH
- 18 T500 MAT FOUNDATION
- 19 T50 ABANDONED CONCRETE
- 20 T0.03 PE.FILM 2 LA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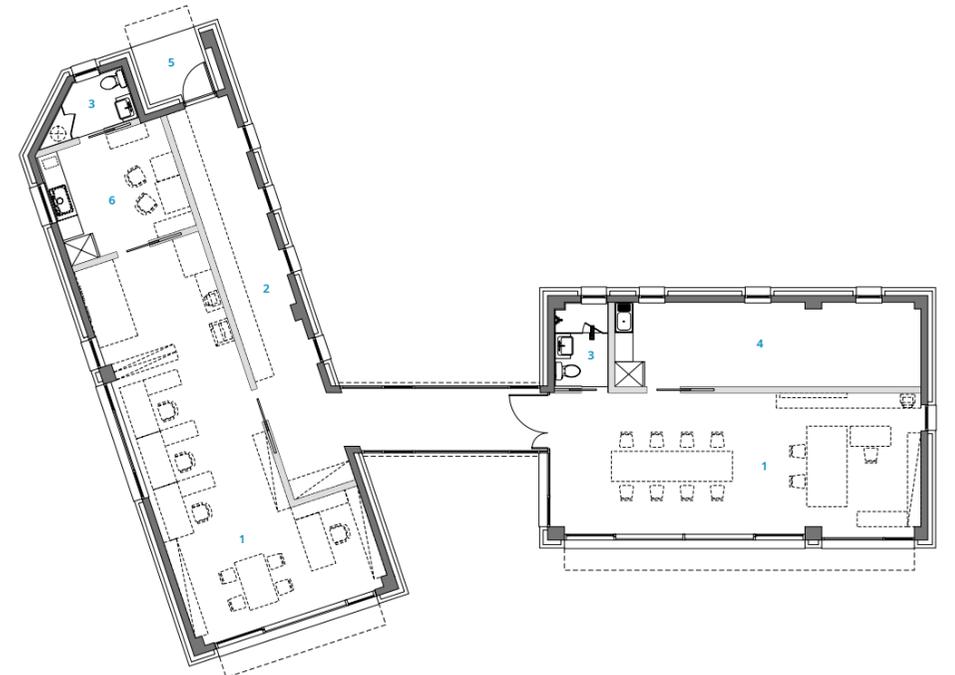
USE CONCEPT

CONSTRUCTIVE DETAIL\_ENTRANCE



SECTION

- 1 OFFICE
- 2 CORRIDOR
- 3 RESTROOM
- 4 OFFICE PANTRY/ REFERENCE ROOM
- 5 ENTRANCE
- 6 OFFICE PANTRY



FLOOR PLAN